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
행정안전부	보 도 참 고 자 료	담당 부서	**행정안전부** 주소정책과 과 장 송경주 사무관 이재영 (02-2100-2832)
	2012년 9월 25(화) 석간 (09:30 이후)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		**지식경제부**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 장 박형민 주무관 신미수 (02-2110-5225)

6,000만 고객의 지식경제부(소속·산하기관), 도로명주소 본격 활용한다

- 행안부와 지경부간 도로명주소 생활화 업무협약(MOU) 체결 -

□ 6,000만 고객을 보유한 지식경제부(소속·산하기관 포함)가 **모든 업무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적용**하기로 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함께 도로명주소의 전 국민 생활화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

○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9월25일(화) 정부중앙청사에서 '도로명주소 생활화'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○ 업무협약식에는 지식경제부 산하 **우정사업본부장,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임원 등이 참석**하여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

□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의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지식경제부는 소속·산하기관이 보유한 **고객주소 6,000만건*을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**하고, 내부업무 및 고객관련 모든 업무에 도로명주소를 선도적으로 도입·활용할 계획이다.

* 우체국 예금·보험 등 금융고객(2,500만), 한전·가스공사 고객(3,500만)

- 이와 함께 기관별 홈페이지 및 대민창구, **금융 통지서, 전기·가스 고지서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적극 홍보** 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집배원이 **도로명 시설물 오부착** 사항 발견시 PDA로 **지자체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송하여 신속히 정비**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.

○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는 **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조속히 안착되기 위한 그 밖의 활동도 적극 모색하여 협력**하기로 하였다.

□ 도로명주소는 지난 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, 내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, **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**해야 한다.

○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서 차분히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분야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

○ 이번 지식경제부와의 업무협약도 **공공분야의 주소전환 및 활용 활성화를 통하여 민간의 도로명주소 활용을 촉진**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다.

□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협약식에서 "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**민간부분의 도로명주소 활용을 견인하는 역할**이 될 수 있을 것"이라며,

○ "많은 국민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**우정사업본부, 한전, 가스공사가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**"고 밝혔다

□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"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**도로명주소 전환 및 활용 사업에 지식경제부가 적극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**"한다며,

○ "우체국 예금·보험 통지서, 전기·가스요금 고지서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홍보함으로써 **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**"고 밝혔다.

□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**도로명주소의 활용도 제고**를 위해 TV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는 물론, **다양한 이벤트**와 **직능·직종별 현장 교육 등을 강화**하고, **주소 다량 보유기관인** 은행, 쇼핑몰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**주소전환을 촉진**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.